

오늘의 시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탄생 비화

## “핏빛 폐허서 피어난 광주의 절규”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침춘의 도시여...” (김준태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중)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광주의 상황은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핏빛이 선 계엄군은 군화발로 시민들을 짓밟고 총칼을 휘둘렀다. 남자와 여자가, 학생과 직장인이, 임산부와 어린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국민 안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헌신적 처럼 던져버린 정치군인들로, 광주는 주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5·18 직후인 1980년 6월 2일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신문 1면에 실린 오월 대표시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사진)는 폐허 속에서 피어난 광주의 '절규'였다. 당시 전남교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은 이 시로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5·18 33주년을 앞두고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비화를 김준태 시인과 당시 전남매일신문 편집부 국장이었던 문순태 작가로부터 들었다.

김 시인은 “당시 광주는 모든 교통수단이 통제된데다 외곽마저 포위됐던 터라 참상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었다. 신문도 발행되지 않던 차에, 6월 2일 문순태 부국장으로 부터 시 한 편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는 계엄군의 기사 검열로 기자들이 신문 제작을 거부하던 상황이었다. 방송국은 불탔고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사라져갔는데도, 보도 통제로 기사화되지 못했다. 문 작가는 “보름간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다. 알다시피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했던 거다. 계엄사에서 일주일 안에 신문을 발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겁박을 했다. 우리는 별수 없이 6월 1일 신용호 편집국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다음 날(2일) 광주시민의 아픔을 대변할



■ 문순태 작가



■ 김준태 시인

80년 6월 2일자 신문

마감 1시간 앞두고

광주아픔 대변 시 부탁

계엄사 삭제 절반 잘려

수 있는 시를 1면에 실기로 결정했다. 또한 1면 사진들보다 상징적 장소인 도청 앞 분수대를 신고 사회면은 광주 표정을 담은 스케치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작가는 기사 마감 1시간 여를 앞두고 김준태 시인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 연결이 돼 제작 의도를 전달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김 시인이 시를 써서 편집국으로 가져왔다. 시 내용은 절절했고 격정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계엄사에서 붉은 펜으로 상당 부분을 삭제했다.

김 시인은 당시

죽은사람 혼령

내 몸안에 들어온 듯

230행 단숨에 써내려가

발표후 가혹한 시련

시를 쓸 때의 심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는 당시 신안동의 한 주택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



아이, 광주여!

있게 하고, 그는 단숨에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 혼령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다. 엑스터시다. 집신의 현상이 분명하다. 진도의 찻감귤 같은... 총에 맞아 피땀 쓰러지는 시민들의 환영이 떠올랐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베트남전을 참전했던 나로서는 그것이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으로 시가 흘러들어왔다.”

김 시인은 시를 쓸 때 나름의 전략을 썼다고 했다. 230행 어떤 구절을 쓰더라도 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심했다. 시의 기법 가운데 ‘매니페스트’라는 형식이 있는데,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양식이다.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문 작가는 “계엄사의 삭제로 김 시인의 시가 절반가량 잘려나갔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것만이라도 게재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에는 활자로 본을 때 제작을 하던 시절이라 원본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복사해 10만부 가량을 찍었다. 이른날 신문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시가 발표되고 나서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다. 예고된 수순이었다. 김 시인은 보안사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문 국장은 해임됐다.

김 시인은 “한달 여 잠행 끝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 집에 들었다”가 불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계엄사의 강요로 사표까지 썼다. 오랜 기간 고통의 삶이 이어졌다.

33년이 흐른 지금, 두 문인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 해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5·18 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김 시인의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파문 확산

이남기 홍보수석 사의·靑 비서실장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일 전격 경질된 데 이어 윤 전 대변인의 직속상관인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하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3·4·5면>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중도 귀국 등을 놓고 청와대 측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등 ‘성추행’ 의혹이 낮뜨거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의 태풍으

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미 도중인 지난 10일 새벽 윤 대변인을 경질했다. 윤 전 대변인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행사가 끝난 7일 밤(미국 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방미 기간 중 자신의 비서 역할을 했던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인턴 여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A씨와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며 수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다음날 아침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인 ‘Missy USA’에는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옮겨졌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은 8일 박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방문에 동행하지 않고 본인의 결정으로 워싱턴에서 출근을 그만두고 귀국, 9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미국 워싱턴 DC 경찰국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대통령의 ‘입’에 청와대 대변인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경질된 것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 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도피 방조 및 능장 보고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방미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 청와대 소속직원의 민망하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히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만큼 무조건 잘못된 일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허 실장은 또 “이번 일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가 있어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책임질 일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5월 17일)을 앞두고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경내에서 불자들의 소원이 적힌 오색연등이 빛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입력하세요.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양말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 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 HERA · 케토름 · 르까프

